가다머의 철학

강의노트
실현의 진리를 구하는 가다머의 해석학

강사: 박남희

실현의 진리를 구하는 가다머의 해석학

1. 가다머의 생애와 저작

현대가 낳은 위대한 철학자 한스 게오르크 가다머Hans-Georg Gadamer는 1900년 독일의 마부르크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두 살 때 약화학 교수인 아버지를 따라 지금은 폴란드 땅인 브레슬라우로 가, 19세 되던 해 다시 마부르크로 돌아올 때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그곳에서 보냈다. 브레슬라우 시절의 가다머는 대철학자를 예감케 하는 철학적 성향을 보이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는 아버지의 영향과 당시 유럽 사회가 맞이한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른 변화에 고무되어 인문학보다는 군사 문제에 더 관심이 많았다.

그런 가다머에게 변화가 일기 시작한 것은 김나지움에 진학해 슈테판 게오르게Stefan George의 시를 접하게 되면서부터였다. 1차 세계대전의 종료와 함께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혼란에 처한 독일의 상황에서 게오르게를 통해 사회, 정치, 문화에 눈뜨게 된 가다머는 점점 민주적이고 공화적인 성향을 띠어갔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 신칸트학파를 만나게 되면서 철학에 관심을 갖게 된 가다머는 본격적으로 철학 공부를 하기 위해 1919년 고향인 마부르크로 돌아온다.

마부르크 대학에서 신칸트학파인 하르트만Nicolai Hartmann과 나토르프Paul Natorp 그리고 쿠르티우스Ernst Robert Courttius 등을 만난 것은 가다머가 고전 철학과 문헌학 쪽으로 연구의 방향을 잡는 계기가 되었다. 실제로 가다머는 1922년에 나토르프의 지도 아래 쓴 논문 〈플라톤의 대화에 있어서의 기쁨의 본질Das Wesen der Lust in den platonischen Dialogen〉로 철학 박사 학위를 받는다.

마부르크에서의 또 다른 중요한 만남은 불트만Rudolf Bultmann 신학 학파와의 만남이다. 가다머는 15년 넘게 이들과 교류하며 고대는 물론 근대와 현대에 이르기까지 문학과 철학에 대해 폭넓게 연구와 토론을 했고, 그러면서 사유의 중요한 한 축을 형성해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다머에게 가장 중요한 학문적 만남은 1922년 하이데거Martin Heidegger를 만난 일이다. 당시 하이데거는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후설Edmund Husserl의 조교로 점차 이름을 알려가고 있었다. 가다머는 하이데거를 통해 철학이 신칸트학파의 날카로운 논증이나 고전에 대한 연구 이상의 그 무엇이어야 함을 깨닫고, 하이데거 수하에서 5년간 연구에 매진한다. 이때 후설의 현상학과 하이데거의 철학 연구 방법을 새롭게 터득한 가다머는 1929년 하이데거의 지도하에 쓴 〈플라톤의 변증법적 윤리학—필레보스에 대한 현상학적 해석Patos dialektische Ethik—Phänomenologische Interpretationen zum Philebos〉이라는 논문으로 교수 자격 시험을 통과하고 대학 철학 강사의 길로 접어든다.

카를 뢰비트Karl Löwith, 게르하르트 크뤼거Gerhard Krüger와 더불어 마부르크의 명강사로 불리던 가다머는 10년의 강사 생활 끝에 마침내 1937년 “헤겔과 역사 정신”이라는 취임 강연을 통해 라이프치히 대학의 교수가 된다. 나치의 지배가 시작되면서 정권의 탄압을 받기도 하고 이용을 당하기도 하는 어려운 시절을 겪지만 그는 혼란한 시기를 비교적 무탈하게 넘기고, 전쟁이 끝난 1946년에 라이프치히 대학의 총장이 된다. 가다머의 총장 취임 연설에서 나온 “사물에 대한 객관성”, “자기 자신에 대한 정직성”, “타자에 대한 관용성”이라는 말은 하이데거의 프라이부르크 대학 총장 취임 연설에서 나온 “근로 봉사”, “국방 봉사”, “학문 봉

사"라는 말과 종종 비교되면서 가다머를 정치보다는 학문에 전념코자 노력한, 그러나 학문적 양심과 자유에 반하는 일에 대해서는 소신에 따라 행동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학자로 기억하게 한다. 이러한 가다머의 태도는 1947년 사회주의가 등장하자 그가 바로 학문의 자유를 위해 프랑크푸르트암마인 대학으로 자리를 옮기는 데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그러나 가다머는 그동안의 후유증 때문인지, 프랑크푸르트암마인에서의 생활을 그 스스로 삶의 막간극이라고 표현할 만큼 이곳에서 아무런 학문적 활동을 하지 않았고, 2년 뒤인 1949년에 야스퍼스Karl Jaspers의 후임으로 하이델베르크 대학으로 와서야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했다. 가다머는 그곳에서 마부르크에서처럼 신학부와 가깝게 지내면서 비로소 정신적인 안정을 찾는다. 그 덕분에 1953년에는 독일에서 가장 정평 있는 철학 잡지인 《철학 전망 Philosophische Rundschau》을 재 발간 했고, 1960년에는 그동안의 강의록을 모아 《진리와 방법Wahrheit und Methode》을 출간한다.

그의 나이 60세에 펴낸 《진리와 방법》은 미학 및 해석학의 역사, 그리고 역사철학과 언어철학에 대한 수십 년간의 그의 연구가 집약되어 있는, 그의 철학을 집대성한 책이다. 가다머는 이 책을 '철학적 해석학의 기본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출간하려 했을 만큼 이 책에서 해석학의 철학적 근거를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 즉 기존의 해석학과 같은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가 아니라, 이해하며 해석하는 일 자체가 인간에게 존재론적으로 있다는 철학적 해석학을 주창하는 것이다.

이 책의 출간은 자연과학의 방법론에 의해 인도된 당시의 계몽주의의 학문 풍토에서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커다란 논쟁을 낳았다. 이탈리아의 법률 해석학자 에밀리오 베티Emilio Betti가 학문의 객관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된 세기의 논쟁은 아도르노Theodor Adorno 등과의 실재성 논쟁으로, 하버마스Jürgen Habermas로 대표되는 이들과의 이데올로기 논쟁으로, 다시 데리다Jacques Derrida와의 해체 논쟁으로 이어지면서 서구 지성사에 풍성한 학문의 시대를 열어간다.

가다머는 자신의 철학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5년 뒤인 1965년에 《진리와 방법》 2판 서문에서 자신의 철학에 대한 해명을 해나간다. 즉 자신의 철학은 방법이 아닌 진리에 대해 묻고자 하는 것이며, 이 진리란 실체적으로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늘 달리 이해하며 자기를 실현해나가는 이해의 운동임을 분명히 한다.

가다머의 처녀작이자 대표작이 된 《진리와 방법》은 모두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부는 예술 경험의 진리 문제를, 제2부는 진리 문제를 정신과학의 이해로 확대하는 문제를, 제3부는 언어를 실마리로 하여 해석학의 존재론적 전환을 다룬다. 가다머가 곧바로 정신과학에서의 진리 문제를 다루지 않고 예술 경험의 진리 문제를 먼저 다루는 것은 이전의 실재론적 진리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진리를 제기하기 위해서이다. 즉 참여하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이해의 운동을 진리로 개진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가다머는 미적 차원의 초월 문제에서 정신과학의 인문주의 전통의 의미를 교양과 공통 감각, 그리고 판단력과 취미의 문제를 통해 찾아나가며, 칸트Immanuel Kant 미학과의 대결을 시도한다. 가다머는 칸트의 미학을 주관화의 미학이라고 비판하며, 예술 작품의 존재론적 측면을 놀이의Spiel 개념을 통해 해석학적 진리 개념으로 새롭게 연결해간다. 이에 근거하여 정신과학의 진리 문제로 확장해가는 제2부에서는 해석학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계몽주의 해석학과 낭만주의 해석학의 차이를 역사학파의 문제와 연결해 논증한다. 그리고 이들과 다른 새로운 인식론, 즉 현상학에 근거한 이해의 해석학을 주창한다. 바로 이것이 가다머 철학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가다머는 여기에서 계몽주의가 불식하고자 했던

선입견을 역사성의 차원에서 해석학의 이해의 선구조로 되살려내며, 권위와 전승 그리고 영향작용사라는 해석학적 경험의 원리로 고양해간다. 그리고 이 문제를 시간 간격을 극복하는 해석학적 현실성의 문제에서 적용의 문제로 다루며 반성 철학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한다. 가다머는 이러한 실례로서 법률적 해석학을 통해 해석학적 진리란 특정한 신학적 해석학에서만이 아니라 실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밝히며, 해석학적 진리를 다시 고대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천 이성으로, 그리고 플라톤의 변증법으로, 대화로 이어가면서 해석학이 방법론이 아닌 존재론이어야 하는 까닭을 거듭 밝힌다. 그리고 제3부에서는 언어의 문제를 통해 이를 다시한번 논구한다. 사람은 언어를 통해서 사유하고 언어를 통해서 이해하고 언어를 통해서 행위하며 살아가기에, 언어는 단순한 지시적 의미의 대상적 언어가 아니며, 존재들의 세계 경험을 담는 존재론적 지평을 갖는다. 따라서 언어는 이해하고 해석해야 할 해석학적인 언어인 것이다. 가다머의 이 언어에 대한 생각은 그 어느 부분보다 하이데거의 영향이 크게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가다머의 언어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하이데거의 언어관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하이데거의 언어가 존재를 드러내는 것에 머문다면 가다머의 언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체적 행위를 하게 하는 힘으로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기독교의 언어관과 맥을 같이한다. 실제로 가다머도 종교 언어에 대해 많은 부분을 할애해 설명하고 있고, 이것이 나중에 성서 해석학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기도 한다.64)

이처럼 가다머가 해석학의 문제를 존재론으로 고양시켜나가며 해석학을 자연과학의 방법론이 아닌 정신과학의 진리의 물음으로 새롭게 개진하는 것은 그의 유년 시절의 경험과 무관하지 않다. 유년 시절 유럽을 휩쓸고 있던 자연과학 기술 문명에 대한 환상이 나치로 인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경험을 한 가다머가 자연스럽게 자연과학의 문제점에 관심을 쏟고 이를 극복하는 일에 매진했으리라는 상상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는 자연과학의 문제점 극복을 자연과학이 기초하고 있는 계몽주의가 아닌, 인간 사유의 또 다른 위대한 전통인 낭만주의에서 구하고자 한 것이리라. 이러한 태도는 그가 마부르크 시절에 불트만 신학파 사람들과, 하이델베르크 시절에 신학부 사람들과 끊임없이 교류하며 연구해온 사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의 이러한 학문적 태도는《진리와 방법》에서만이 아니라 1980년에 출판된《대화와 변증법Dialog und Dialiktik》, 1982년에 출판된《과학 시대의 이성Vernunft im Zeitalter der Wissenschaft》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대화와 변증법》에는 근대에 축소되고 왜곡된 이성의 작용을 고대의 플라톤, 소크라테스에게까지 소급해 이성의 본래적 의미를 되살려내려는 그의 의도가 충실히 반영되어 있으며,《과학 시대의 이성》에서는 가다머는 근대 과학 기술의 발전에 토대를 제공한 도구적 이성의 문제를 심도 있게 논구한다.

가다머는《과학 시대의 이성》을 다음과 같은 목차로 논의를 전개한다. 1.`과학(학문)의 철학적인 것과 철학의 과학성 2.`헤겔 철학과 오늘 날까지의 그의 영향 3.`실천이란 무엇인가`ㅡ사회적 이성의 조건들 4.`실천철학으로서의 해석학 5.`철학으로 향하는 인간의 본래성에 관하여 6.`철학이냐 과학이론이냐.

목차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다머는 '과학 기술 시대의 철학함'의 문제를 과학과 철학의 관계에서 과연 이성은 어떻게 작동되는가를 통해 고찰해나간다. 가다머는 데카르트René Descartes 이래로 정신과 물질이 분리되면서 근대의 이성은 윤리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물질을 대상으로 자연과학 기술을 발달시켜왔으나, 이때 이성은 물질로부터 스스로 소외된 협소화된 도구적 이성으로 전락하게 되고, 그 결과 오늘날의 많은 문제들, 즉 환경오염, 인간성 상실, 비인간적인 삶 등의 문제들이 초래되었다고 본다. 다시 말해 가다머는 근대 이성의 자

기 소외가 바로 철학함의 부재를 가져왔고, 철학함의 부재가 결국 인문학의 위기를 초래하며 인간 삶의 총체적 위기를 가져왔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구명하기 위해 가다머는 하이데거를 지렛대로 삼아, 근대 과학 기술 문명의 토대를 제공한 헤겔G. W. F. Hegel, 칸트, 데카르트를 비판하면서 중세의 신비주의를 지나 고대의 플라톤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비판의 여정에 오른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철학함의 문제를 다시 고찰하면서 이성의 본래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히며, 다시 고대로부터 현재로의 이행을 강행한다. 그래서 그는 오늘날의 방법과 이론으로 대치되어버린, 실증과학과 같이 강단 안에 갇힌 개별 학문으로서의 철학함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의 삶과 하나로 있는 철학함의 의미를 고대의 인문학적 전통이 살아 있는 길을 따라 현재에 이르기까지 규명해 나온다. 바로 이것이 인간 이성의 본래적 의미를 되찾는 일이라 여기는 것이다.

가다머는 근대 자연과학의 발달을 가져온 도구적 이성이 과연 인간 이성이라고 할 수 있는가를, 이성의 문제를 가장 극단적으로 확대해나간 헤겔을 통해 다시금 물어나간다. 그래서 이성의 문제를 도구적 이성이라는 협소한 의미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성찰을 통해 주어진 모든 것들과 더불어 마주하는 현실의 문제를 하나로 융합하며 늘 달리 자신을 실현하며 나오는 일이 이성의 작용임을 밝히고자 한다. 다시 말해 가다머는 이성의 의미를 이전과 달리 '이해'에서 구하는 것이다. 이때 이해란 물론 대상에 대한 앎의 차원이 아닌, 그렇게 이해함이 곧 그렇게 존재하는 일임과 동시에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일 자체를 의미한다. 바로 이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나오는 일이 철학함이다. 그러므로 철학이란 무엇에 대한 앎을 구하는 학문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 속에서 날마다 자신을 새롭게 만들며 나오는 일인 것이다.

근대의 이성이 감성과 대립하는 관계라 한다면, 이해는 이 모든 것들과 하나로 융합하며 늘 달리 새로워지는 무한의 운동으로 있다. 이 이해의 운동에서 존재는 자신을 늘 달리 새롭게 만들어간다. 가다머는 철학을 무엇을 아는 이론의 학문으로 여기지 않고, 구체적인 존재로 생성하며 나오는 실천 학문으로서의 철학함을 해석학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가다머는 이 책에서 헤겔로부터 자신의 철학함에로 나오는 길을 집중해서 보여준다. 다시 말해 가다머는 데카르트의 사유하는 인간의 길을, 칸트의 다양한 사유의 가능성을 따라, 헤겔의 이성의 변증법적 운동을 이전과 다른 관점에서 조심스레 읽어 나오며 헤겔을 만난다. 가다머는, 헤겔이 데카르트가 말한 이성을 극대화하면서 이성과 대립되는 다른 측면을 소외시키는 우를 범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물자체는 알 수 없다는 칸트의 겸손함을 비양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이요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이라는 헤겔의 변증법적 이성의 운동이 삶 전체 영역으로 확대해간다는 점을 주목한다. 물론 헤겔의 이성의 운동이 계몽주의의 이성을 절대화하며, 이를 목적론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겔이 이성의 운동, 즉 사유하는 일과 객관적 실재를 하나로 본다는 점에서 가다머 자신이 추구하는 철학함의 실마리를 제공한다고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 철학이 강단 철학 안에 갇힌 이론의 개별 학문이 아닌, 삶 전 지평에서 현실의 모든 것들과 함께하는 사유의 운동이 되어야 한다는 철학함의 문제를 가다머는 헤겔에게서 발견하는 것이다. 즉 기술 사회가 제공하는 편리함에 길들어져 스스로 사유하는 일을 잊어버린 현대인들에게 삶의 모든 영역과 하나로 있는 헤겔의 사유의 운동은 자신의 철학함의 문제로 나아오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그는 보는 것이다. 헤겔의 이성의 운동이 단순한 이성의 작용이기보다 이전과 다른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변증법적 이성의 운동이라는 점에서 가다머는 더더욱 새로움이라는 생성의 운동 또한 본다. 그래서 그는 헤겔의 이성의 변증법적 운동을, 앞서 있는 전통과 마주하는 현실을 하나로 적용하며 있는 이해의 운동으로서의 지평 융합으로 달리 설명하면서, 이 이해의 운동을

존재하는 것과 동시적으로 있는 존재성으로 본다. 다시 말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바로 그렇게 존재하게 된 이해가 존재성으로 있다는 것이다. 이 이해의 운동이 우리를 늘 끊임없이 새로운 존재로 이끌어간다는, 존재와 사유의 동시성을, 달리 말해서 존재와 이해의 동시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제 데카르트가 열어젖힌 근대의 이성을 절대화한 헤겔의 이성은, 이성만이 아니라 감성, 오성은 물론 그 모든 것들과 하나로 있는 이해에서, 사유하는 인간의 존재를 온전히 해명한다.

가다머가 헤겔을 통해 자신의 철학의 문제를 파악하고자 한 데에는 그가 헤겔 연구소 소장을 지낸 것도 영향도 있지만, 더 멀리 보면 무엇보다 그는 자신의 유년 시절에 독일 사회를 지배하고 한편으로는 사람들에게 꿈을 불어넣어 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을 절망하게 만들었던 헤겔에 대한 평가를 재 시도해보고 싶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가다머는 헤겔 철학을 비판하며 등장한 신칸트학파를 통해 처음으로 철학을 접했고, 이 신칸트학파의 한계를 또다시 하이데거 철학을 통해서 극복해갔기 때문이다. 어찌 되었든 헤겔과의 연관 속에서 자신의 철학함을 새롭게 제기하는 가다머의 이러한 주장이 하이데거의 연장선상에서만 가다머를 보려했던 그동안의 일관된 태도로부터 우리를 끌어내 더 넓은 시야로 이끌어주는 것만큼은 분명하다.65)

가다머는 지금까지 살펴본 책들 외에, 개념사를 위한 연구 모임과 개념사 문고를 만들어 요아힘 리터Joachim Ritter가 편찬한 《철학 역사 용어 사전Historische Wörterbuch der Philosophie》을 발간하기도 했다. 그리고 1965년에는 독일철학회 회장을 지냈고, 1968년 대학에서 정년 퇴직을 한 후에는 하이델베르크 학술원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철학처럼 학문의 통합과 학제적 통합 작업에 전력하기도 하고, 북미 등에서 강연을 통해 유럽 대륙 철학을 소개하는 데 힘쓰기도 했다. 이때 한 강연들을 묶어 펴낸 책들이 《가다머 현대 의학을 말하다Über die Verborgenheit der Gesundheit》66), 《교육은 자기 교육이다Erzie-hung ist sich erziehen》67), 그리고 《고통Schmerz》68) 등이다. 이 책들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다머는 자신의 철학을 분과 학문으로서가 아니라 실천적 삶의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해나갔다. 다행스럽게도 이 책들은 우리나라에도 번역본이 나와 있다.69)

하이델베르크 생활에서부터 시작된 가다머의 지칠 줄 모르는 학문에 대한 열정과 전념은 그가 102세에 노환으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가 연구와 강의 및 강연을 계속했기에 그것의 내용을 담은 소책자들도 계속 출간되고 있다. 또한 그의 모든 저작이 1985년부터 《선집Gesammelte Werke》으로 발간되고 있는데 2009년 현재까지 모두 열권이 나왔다. 그 열권의 차례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권 해석학 I : 진리와 방법—철학적 해석학의 기본 특징들
제2권 해석학 II : 진리와 방법—보충 색인
제3권 새로운 철학 I : 헤겔, 후설, 하이데거
제4권 새로운 철학 II : 문제, 형성
제5권 그리스 철학 I
제6권 그리스 철학 II
제7권 그리스 철학 III : 플라톤의 대화
제8권 미학과 정치학 I : 언표로서의 기술
제9권 미학과 정치학 II : 자기실현으로서의 해석학
제10권 회상으로의 해석학

이 중에서 현재 우리나라에 번역된 것은 아쉽게도 《진리와 방법》 과 이번에 번역 개정한

《과학 시대의 이성》뿐이다. 이는 가다머의 사상이 아직 우리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못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해준다.

가다머에 관한 번역서로는 조지아 원키Georgia Warnke의 《가다머 : 해석학, 전통 그리고 이성Gadamer—hermeneutics, tradition and reason》70)과 카이 하머마이스터Kai Hammermeister의 《한스 게오르크 가다머Hans-Georg Gadamer》71)가 있다. 그리고 가다머에 대한 국내 저술로는 다수의 학위 논문과 한국해석학회 학회지에 실린 다수의 논문이 있다.72)

2. 가다머 철학과 철학사적 의미

가다머 철학의 핵심은 그 무엇보다도 진리의 개진이다. 실재성이 아닌 이해의 운동에서 진리를 구하고자 하는 가다머의 해석학은 도대체 진리란 무엇인가를 물을 수밖에 없었던 당시 독일의 혼란한 정세와 맞물려 있다. 자신이 처한 어려운 삶의 한가운데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물음은, 그대로 모든 것을 하나로 융합하며 가장 적합함Gemessenheit으로 나오고자 하는 그의 철학으로, 철학함으로서의 실천철학으로, 존재론적 해석학으로 이어진다.

근대 이후 촉발된 과학 기술 문명은 편리함과 미래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지만 이것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달은 가다머는 과학 기술이 표방하는 진리 개념이 아닌, 예술 경험으로부터 진리를 새롭게 구한다. 이를 위해 먼저 가다머는 교양과 공통 감각, 판단력, 취미 등 아직도 살아 있는 인문주의의 전통을 되살려내고, 과학 기술 문명이 토대로 삼고 있는 근대 사유와의 대결을 칸트의 미학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칸트의 미학을 대상에 대한 주관적 감정의 기술이라 비판하며, 예술의 존재론적 진리 개념을 놀이Spiel 개념으로 설명해간다.

가다머의 이와 같은 철학적 태도는 근대의 계몽주의가 지닌 한계를 지적하며 독일 낭만주의로 전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방법론으로부터 존재론으로의 해석학의 이행을 시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다머는 슐라이어마허Friedrich Schleiermacher의 이해의 기술론이나 딜타이Wilhelm Dilthey의 정신과학의 방법론으로서의 해석학이 아닌, 하이데거의 현상학적 해석학에 의거하여 새로운 존재론적 해석학을 주창한다.

그의 이러한 해석학은 앞서 주어져 있는 선입견, 전통, 선 이해를 계몽주의처럼 배제하기보다, 오히려 이와 더불어 하나로 융해하며 새로움을 나아오는 것으로, 그 권위를 복권시킨다. 그리고 이를 전승, 선이해, 또는 영향작용사라고도 부르며, 마주하는 현실과 더불어 지평 융합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지평 융합에서 이해의 운동을 해석으로, 적용으로 되풀이해 설명한다. 다시 말해 영향작용사인 전승과 마주하는 현실을 하나로 융합하는 것이, 하나로 이해하는 일임과 동시에 하나로 적용하는 실천인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다른 해석학자들과 다른 가다머만의 철학적 특징이 드러난다. 그에게서 적용이란 아는 것을 차후에 실천하는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하나이다. 즉 이해와 적용은 다른 것이 아니다. 이해의 구체적 실현이 적용인 것이다. 가다머는 이를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천 이론pronesis과 더불어 설명하기도 하고, 법률 해석의 문제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하며, 플라톤의 변증법과 대화에서 모범을 찾기도 한다.

그리고 가다머는 예술 경험으로부터 시작한 정신과학의 새로운 진리 개념을 다시 언어로 설명해간다. 해석학의 경험은 언어를 매개로 하기 때문이다. 그가 볼 때 언어에는 대상 규정의 언어와 수행 규정의 언어가 있는데, 해석학에서 언어란 세계 경험으로서의 언어를 말한다. 언어란 사실을 언명하는 것 이전에 말하는 사람의 세계관을 드러내는 하나의 해석이기 때문에, 말하는 자의 존재론적 지평을 열어준다. 그렇기에 언어란 언제나 해석이며 존재의 터가 된다. 따라서 언어가 말해진다는 것은 이해하며 해석하며 적용하며 존재를 드러내는 구체적 사건이고, 가다머에게 언어란 바로 존재를 늘 달리 새롭게 현현하는 힘이 된다. 늘 달리 새롭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존재의 생성이 언어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가다머는 예술의 경험을 통해, 낭만주의적 전통을 통해, 존재론적 지평으로서의 언어를 통해, 자연과학에 의해 전도된 진리 개념을 제자리로 돌려놓고자 한다. 그가 볼 때 자연과학의 진리란 삶의 전체성을 편리에 따라 그리고 목적에 따라 단순화해서 체계화하고 이론

화해나간 하나의 방법일 뿐, 그것이 우리의 삶 전체를 해명해주는 진리일 수는 없다고 한다. 그래서 가다머는 근대 과학 기술이 토대로 삼고 있는 계몽주의 철학자들의 사유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고대의 사유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진리의 본래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힌다. 그에게 진리란 아는 것이 아닌, 사는 일이다. 앎이 따로 있고 사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앎과 삶이 하나로 있는 것이다. 사람은 자기에 앞서 있는 것들과 함께 마주하는 현실을 하나로 융합하면서 가장 적합함으로 자신을 만들며 나오는 것이다. 자연과학의 실재성이 진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로 이해하며 해석하며 적용하며 자기를 실현하는 이해의 운동이 진리인 것이며, 이것이 가다머가 말하는 해석학이며 실천학이며 철학함이다.

이해란 단순히 무엇을 알고 모르고 하는 차원이 아니며, 이해함이 곧 존재하는 일인, 곧 이해와 존재의 동시성을 말해준다. 이해하는 만큼 존재로 구체화되는 것이다. 가다머의 해석학을 슐라이어마허나 딜타이 등의 해석학과 달리 철학적 해석학, 또는 존재론적 해석학이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가다머의 존재론적 해석학은 그가 후설의 현상학적 인식 방법에 따른 하이데거의 존재 해명에, 헤겔의 변증법적 운동의 자기 생성의 논리를 함께 논구해나간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박사 학위 논문과 교수 자격 시험 논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플라톤을 비롯한 고대 학자들에 대한 그의 깊이 있는 연구가 그의 철학을 사유의 깊이로 인도해준 덕분이기도 하다. 가다머는 특히 플라톤의 대화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천 이성을 새롭게 해석하며 자신의 철학으로 이끈다. 즉, 그는 플라톤의 사상을 이데아 중심에서가 아니라 대화에서 보며,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의 사상을 실천 이성으로 전개해나가듯이 이를 이해로 전개해간 것이다. 그리고 이 이해를 헤겔의 변증법적 운동과 연결해 자기를 늘 달리 실현해가는 이해의 운동임을, 그리고 다시 하이데거가 존재를 현상학적 방법에서 해명하듯 이해가 존재의 존재성임을 주창하는 것이다. 그래서 늘 달리 새롭게 자기를 실현해가는 가다머의 이해의 운동은 니체가 말한 것처럼 자기 생성의 원인과 책임을 자기 안에 갖는 힘 있는 존재가 될 것을 권하는 것이다. 자기가 처한 상황 속에서, 그리고 마주하는 현실과 더불어 하나로 지평 융합을 하는 가운데 가장 적합함이 무엇인지를 나름으로 판단하며 자기로 나오는 존재야말로 참 자유로운 존재이다.

이러한 가다머의 철학은 실체적 실재론적 형이상학을 폐기하려는 니체, 그리고 하이데거에 이르는 사유의 연장선상에서 주변 학문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이해가 다른 만큼 존재의 차이를 갖는 존재 이해는, 근대의 이성에 따른 동일성의 논리에 따른 단순 비교나 우열에 따른 차별을 지양하고 다름을 인정하며 다양성의 세계를 열어준다. 따라서 동일성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이론적 교육이 아닌 스스로 경험하는 가운데 자기를 만들어가는 주체적 교육의 길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신학, 사회문화, 정치경제 등에서도 반목하거나 분쟁하거나 투쟁하기보다는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이해의 관계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먼저, 교육학에서는 교수와 학생 간의 인격 대 인격의 만남 속에서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구별 없이 배우는 자도 가르치는 자도 각기 그 나름의 자기실현을 해나갈 것을 주창하는 교육 철학이 새롭게 제기된다. 그래서 교육이란 가르치는 자가 일방적으로 이론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강의에 참여하는 자들이 강의실 안에서 서로 주고받는 과정 중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말한다.

그리고 법학에서는 판결하는 사람이나 법조문을 읽는 사람이나 모두 법률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법률 해석의 문제가 제기된다. 다시 말해 법률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법률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가에 따라 달리 판결로 드러나는

것이라는 차원에서 법률 적용의 문제가 새롭게 대두된다. 그러므로 앞서 주어진 법률에 의해 사람과 상황이 일방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에서 법 조항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가 하는 것이 판결의 관건이 된다. 법률과 상황을 하나로 융합하며 적용하는 문제가 법 종사자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또한 예술에서는 기존의 미학적 태도에서 벗어나 아름다움이라는 예술의 새로운 차원을 열어간다. 가다머에게 예술이란 주관적 감정의 충일함이나 객관 세계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마주하는 것 사이에서 말 걸어옴과 응답함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예술이란 대화에서처럼 말 걸어옴과 이에 응답함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예술가가 따로 있고 예술 작품이 따로 있지 않다. 예술은 그때그때 마주하는 둘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으로, 아는 것도 그래서 소유하는 것도 아닌 오직 경험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이 일어날 때, 다시 말해서 진리가 자신을 열어 보일 때 그것을 예술 작품이라고 하며, 진리를 열어 보이는 이를 예술가라 한다. 사람이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술이 그때그때 달리 자기를 열어젖혀 보이는 것이다. 예술에 의해 예술가도 예술 작품도 있게 된다. 예술에 참여하는 사람만이 예술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벤냐민Walter Benjamin이나 아도르노Theodor Adorno에게 복사품이냐 원본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면 가다머에게는 이 모든 것 이전에 예술에 대한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문제이다.73)

의학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사람은 신체와 더불어 자신의 존재 자리를 묻고 이를 해명하는 가운데 삶의 의미를 구하며 늘 달리 새롭게 자신을 만들어가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고통도, 아픔도, 심지어 신체의 이상도 의사의 도움과 조언을 받는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치료의 주체인 것이다. 자기가 자기를 만들어가듯이 자기가 자기를 치료해가는 것이다.

또한 건강이란 단순히 신체의 건강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병도 단순히 신체의 이상이기만 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치료 또한 신체의 메커니즘을 회복하는 일일 수만은 없다. 그렇기에 사람은 때에 따라 고통을 배제하는 것보다는 고통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그리고 신체의 회복보다는 일상생활로의 회복에 더 큰 치료의 의미를 두기도 한다. 이는 치료의 중심이 의사가 행하는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환자 자신이어야 함을 말한다. 의사는 환자의 위나 아래가 아니라 환자의 옆에 서야 하며, 치료를 중심으로 환자를 동등한 주체로서 마주해야 한다. 그래서 환자는 환자대로 의사와 더불어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을 하나로 융합하면서 스스로 치유해갈 수 있는 힘을 배양하며, 의사는 의사대로 보다 좋은 의사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한다.

종교의 경우에는 특히 교리와 신앙의 문제로 전개된다. 초기 해석학이 성서를 어떻게 보다 잘 이해하느냐에 중점이 있었다면, 가다머의 해석학은 성서를 지금 여기에 살아 있는 언어로 다시 읽는 가운데 새로운 존재로의 변화를 경험하는 구체적 실천과 관계가 있다. 성서를 과거의 성인의 말씀으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살아 있는 언어로 다시금 살려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목사의 설교는 과거 예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살아 있는 예수를 만나도록 하는 것이며, 예배는 예배에 참여한 자들이 살아 있는 예수를 경험하는 일이다. 그래서 어제와 다른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일이 중요하다. 그렇기에 교리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리가 담고 있는 정신이 중요하고, 글자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를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며, 편협한 교리나 교단 종파에 매이지 않고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참 종교인을 지향한다.

가다머의 실현의 진리는 윤리학의 영역에서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거인에게서 시발한 윤리학은 가다머에 이르러 해석학적 윤리학을 주창하게 된다. 윤리학이란

철학의 한 분야가 아니라 참된 사랑ethos으로 사는 일이며, 누구나 짊어져야 할 책임과 의무와 감사를 아는 일이다. 참된 사랑을 아는 사람은 법이 있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법에 저촉될 만한 일을 하지 않는다. 당위 윤리나 규범 윤리 같은 행위의 근거를 내 밖에서 구하지도 않고 그럴 필요도 없으며, 처해진 상황에서 적합함이 무엇인지, 매 순간 물으며 스스로 이해하고 판단하고 결단하고 적용하고 해석하는 가운데 자기를 늘 달리 새롭게 실현해가는 존재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와 겸손, 그리고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반듯함으로, 성실함으로, 온전함으로 나아오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해석학은 윤리학이라 할 수 있으며, 참된 윤리학은 해석학이 되어야만 한다.

가다머의 해석학은 언어학에서도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다. 형이상학에서 윤리학으로, 다시 인식론과 지식론으로 옮겨 갔던 철학의 중심 사유는 20세기를 전후해서 언어철학으로 옮겨간다. 언어철학은 언어를 논리 언어로 파악하는 언어분석철학과 언어를 존재론적 측면에서 보려는 존재언어철학이라는 두 흐름으로 크게 나뉘는데, 가다머는 하이데거와 함께 후자에 속한다.

가다머의 언어관은 여러 면에서 하이데거의 언어관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이데거가 언어를 존재의 집으로 파악하듯이 가다머도 언어를 존재가 자기를 실현해가는 매개라고 본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하이데거가 언어의 이중성, 즉 말해짐과 가려짐에 근거하여 언어가 말해지는 사건을 존재가 자기를 드러내는 계시와 은폐로 이야기하는 반면에, 가다머는 대화를 통해 늘 달리 자신을 실현해가는 운동으로, 그래서 구체적으로 행위를 낳는 힘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다머의 언어관은 그가 《진리와 방법》 3부에서 언어를 따로 다룰 만큼 그의 철학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왜냐하면 해석학이란 텍스트, 즉 언어를 매개로 하기 때문이다.

가다머에게 있어 언어는 단지 글이나 음성 언어만이 아니고 말을 걸어오는 모든 것이 언어이다. 내가 나와 하는 대화가 사유이며 철학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언어를 떠나 살 수 없고, 언어 밖의 세계란 존재하지 않게 된다. 모든 것이 언어가 되어 내게 말을 걸어오고 나는 그것을 마주하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나를 실현해 나온다는 것이 그의 철학의 핵심이라 하겠다.

그 밖에 가다머의 철학은 세계화로 인한 다문화 사회에서, 혈통과 인종과 지역과 이념이 다르고 종교와 성별과 나이와 직위와 학벌이 다르며 경제적 능력과 소속이 다른 탓에 쉽게 발생하는 분쟁과 갈등과 다툼에 대해 지평융합, 전승등의 문제를 통해 많은 이야기를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가다머의 철학은 이론의 학문이 아니라 실천 학문으로서의 철학을 요구하는 것이며, 나아가 분절되고 파편화된 개별 학문이 아니라 삶의 전체성을 하나로 어우르는 진정한 삶의 철학을 지향하는 것이라 하겠다.

3. 가다머의 철학적 해석학의 중요 개념들

가다머의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용어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가다머는 기존의 사유와 구별하기 위해 자신만의 언어를 달리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다머의 철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들에 대해 알아보자.

(1) 이해Verstehen

가다머에게 이해란 대상에 대한 이해가 아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다 잘 이해하고 못하고 하는 차원이나 옳고 그름을 가리는 차원이 아니라, 이해가 나와 같이 하나로 융합하며 있는 존재론적 차원을 말한다. 즉 가다머에게 이해란 무엇을 알고 모르고 하는 앎의 차원이 아니라 그렇게 이해함이 그렇게 존재하는, 이해와 존재가 동시에 하나로 있는 존재론적 차원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 이해란 죽어 있는 이론이 아닌,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생성적 차원을 지시한다. 이러한 이해는 늘 달리 끊임없이 일어나는 무한의 운동으로, 가다머는 이 이해의 무한 운동을 늘 달리 새롭게 자기를 실현Vollzug해가는 진리로 해명한다. 그래서 가다머는 자신의 철학을 다른 해석학들과 다른 존재론적 해석학으로 규정하며, 실천학으로서의 철학함을, 나아가 삶의 기술로서의 예술의 진리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2) 적용Anwendung

적용은 가다머의 철학적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이전의 해석학은 이해와 해석과 적용을 각기 다른 이해의 실현 방식으로 파악하면서 이해에 정신의 정교한 능력인 적용이 첨가되는 것으로 설명했으나, 가다머는 이 적용에서 이해의 내적 융합이 일어나는 것으로 설명한다. 이 셋은 구분되고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해석학적 과정에서 함께 성립하는 요소로서, 적용에서 모든 이해가 구체적으로 실현된다는 것이 가다머의 논지이다. 그러므로 가다머에게서는 이해한 후에 적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함이 곧 적용이다. 따라서 이해는 언제나 해석이고 적용이다. 바로 이 점에 의해 이해가 지식이나 이론적 차원이 아니라 경험의 차원이자 구체적 행위를 낳는 실천적 차원이게 된다.

이처럼 가다머는 적용의 문제에서 전승과 더불어 마주하는 현실을 하나로 지평 융합하면서 구체적으로 새롭게 자기를 실현해가는 이해의 운동을 하나라는 전체성Universalität안에서의 동시성으로 설명함으로써, 주-객의 분열이라는 이분법적 대립 구도에 의해 야기된 문제를 극복해나가고자 한다. 그래서 가다머는 이론을 알고 이를 차후에 적용하는 의미에서의 적용을 Applikation으로, 그리고 자신이 말하는 이해와 해석과 실현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적용을 Anwendung으로 구별하여 쓰고 있다. 바로 이 적용의 문제는 다른 해석학자들만이 아니라, 뒤에서 언급하게 될 하버마스와의 논쟁에서도 중요한 차이로 부각된다.

(3) 지평 융합`Horizontverschmelzung

지평 융합이란 앞서 주어져 있는 지평과 내가 지금 마주하는 현실 지평이 하나로 이해하며 적용하며 있는 지평을 가리킨다. 즉, 나에게 전승된 지평과 더불어 마주하는 현실의 지평을 하나로 융합하며 있는 지평을 가리킨다. 두 지평의 융합이라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구분되거나 나누어진 지평의 합이 아니라, 늘 끊임없이 계속 이어져가는 유동적 지평을 말한다. 이 지평 융합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로 이해하고 적용하고 해석하며 새로운 존재 생성을 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앞서 주어져 있는 지평이란 단순히 지나가버린 과거가 아니라, 그래서 단절된 지평이 아니라, 때로는 전승으로, 선입견으로, 권위로, 영향작용사로 현실의 삶 안에 여전히 영향을 끼치는 앞선 이해를 말한다. 이는 그동안 계몽주의가 불식하고자 한 선입견을 가다머가 이해의 선구조로 복권시키는 것이며 현실의 삶이란 이성의 의지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과 더불어 새롭게 만들어져간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는 후설의 현상학에 의지해 한편으로는 헤겔의 이성절대주의를 비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헤겔의 변증법을 새롭게 해석하는 가다머의 의도가 가장 잘 드러나는 말이다. 가다머는 헤겔처럼 모든 것이 의지에 의해서 실현된다고 보지 않고, 어찌할 수 없는 비의지적인 것들인 전승, 선입견 등과 하나로 융합하는 지평 융합에 의해 늘 달리 새로운 존재가 실현된다고 보았다. 이렇게 헤겔의 이성 운동을 필연적으로 도출하는 목적론적 운동이 아니라, 무한의 운동을 이야기함으로써 가다머는 동일성의 논리와도, 이데올로기 논쟁과도, 그리고 객관적 방법론과도, 무례한 주체론과도 거리를 둘 수 있게 된다.

가다머의 이러한 태도는 주-객의 분리에서 출발하는 당시 서구의 사유에 대한 극복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가다머는 서구의 사유는 목적과 편리에 따라 사람과 자연, 신체와 정신, 이성과 비이성, 의지와 비의지, 의식과 무의식 등으로 분절화, 이론화, 체계화해 나감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전도된 삶을 살아가게 하나 본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융합하며 있는 존재라는 존재 이해에서 출발한다.

(4) 전승Überlieferung

가다머는 전통Tradition이라는 말 대신 전승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는 지평 융합에서 앞서 주어진 지평을 뜻하는 전통의 또 다른 이름이다. 가다머가 이를 전통과 구별하여 전승이라고 부르는 것은 기존의 전통의 의미와 다른, 자신만의 의미로서 늘 달리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의 의미를 살리고자 해서다. 전통이 단순히 되풀이해 기억해야 하는 앎의 차원이라 한다면, 전승은 시대마다 공동체마다 공동체의 가치와 더불어 가장 적합함을 구하는 가운데 달리 이해되며 해석되며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을 말한다. 다시 말해 전승은 전통과 달리 시대의 가치가 하나로 적용되며 있는 것이기에, 전승과 더불어 이해하며 해석하며 적용하며 자기를 실현하며 나오고자 하는 존재들은 이미 가치 판단을 하며 있는 것이다. 가다머를 상대주의로 몰아붙이거나 비윤리적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공통 감각sensus communis과 더불어 특히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고찰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가다머는 엄밀한 의미에서 모든 전통은 전승이라고도 말한다. 왜냐하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단순히 반복해 내려오는 전통이란 있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5) 영향작용사Wirkungsgeschichte

전승 또는 선입견, 선판단 등을 가다머는 다른 말로 영향작용사라고도 한다. 이는 전승, 선입견, 선판단이 내게 영향을 끼치며 있는, 그러나 나의 의지가 미치지 못하는 또 다른 하나의 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근대의 인간 이해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인간 이성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근대의 환상이 심어놓은 유토피아로부터 벗어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때 인간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또 다른 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다머는 이를 다른 철학자들과 달리 역사성과 결합해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영향작용사로 설명한다. 그러나 이는 나를 억압하는 것이라기보다 나를 늘 달리 새롭게 하는 것이다. 가다머의 이러한 태도는 계몽주의와 달리 선입견을

배제하지 않고, 오히려 선입견을 현실을 변화시키는 능동적인 힘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그는 사람이란 자기가 속한 사회, 역사, 세계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이기는 하나 이와 더불어 이를 넘어서가는 존재이기도 하다고 보는 것이다.

(6) 선입견Vorurteil

가다머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선입견을 복권시키는 것이다. 계몽주의가 선입견을 부정적 입장에서 보고 배제해야 할 것으로 여기는 반면, 가다머는 이를 배제할 수 없는 현 사실성으로 인정한다. 사람은 모두 자신이 처해 있는 공동체의 가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그 안에서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라는 사실은 사람이 이미 그 나름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선입견에서부터 또 다른 이해가 있게 된다는 뜻이다. 가다머는 이를 선이해로, 선판단으로, 전승으로, 영향작용사로 달리 설명하면서 자기 이해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7) 권위Autorität

가다머가 말하는 권위는 선입견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나보다 앞서 있는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의 다른 말로, 나보다 앞서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 그 나름의 존재성을 인정하며 그것들을 나의 삶에 부분적으로 수용한다는 뜻이다. 가다머는 권위의 문제를 전통에 대한 권위로 설명하면서, 해석의 문제로 연결시켜나간다. 해석이란 나의 주관적 감정의 표출이 아니고, 반대로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닌, 권위에 대한 인정과 더불어 주-객의 관계를 넘어서게 하는 것이다. 권위란 이처럼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권력과는 다른, 마주하는 둘 사이에서 수용하는 자에 의해서 생겨나는 존중의 다른 이름이다.

(8) 실현Vollzug

가다머 철학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해의 무한 운동을 실현의 진리로 밝히는 일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사실은 그의 주저 《진리와 방법》은 물론이고 본 책인 《과학 시대의 이성》에서도 잘 알 수 있지만, 특히 그가 90세를 넘긴 1992년에 자신의 철학을 결산하며 쓴 두 논문 〈말과 그림－그렇게 참으로, 그렇게 존재하는〉74)과 〈의례와 언어의 현상학에 관하여〉75)에서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가다머는 이해는 지식을 추구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을 늘 달리 새롭게 끊임없이 실현해가는 무한의 운동이라고 보았다. 그에게 진리란 이처럼 실재성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늘 달리 실현해가는 이해의 운동 그 자체인 것이다. 그러므로 늘 달리 자신을 실현해가는 존재는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며, 진리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며, 진리와 더불어 사는 것이다. 그렇기에 진리는 아는 것도, 소유하는 것도, 따르는 것도 아닌, 경험하는 것이며, 만나는 것이며, 그것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 노는 것이다.

(9) 일반성Allgemeinheit과 전체성Totalität과 보편성Universalität

이 용어들은 가다머가 자연과학적 의미와 해석학적 의미의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는 말이다. 일반성으로 번역한 Allgemeinheit는 누구에게나 있는 공통성으로서의 보편성을 뜻하고, 전체성으로 번역한 Totalität는 부분들을 합한 보편성을 뜻하며, 보편성으로 번역한 Universalität는 개별적이면서 동시에 모든 것을 통칭하는 해석학적 보편성을 뜻한다. 즉 각각은 다르나, 그 다르다는 사실이 모두에게 다름으로 있다는 의미에서의 보편성이다. 가다머는 각기 다른 전승과 더불어 마주하는 현실을 하나로 지평 융합해가는, 실현의 진리로서의 무

한의 이해의 운동이 모든 사람에게 각기 다르게 보편적으로 있다는 의미에서 일반성과 전체성과 달리 보편성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리고 이를 해석학적 보편성이라 부른다.

(10) 사실적 역사Historie와 해석학적 역사Geschichte

Historie는 객관적 사실로서의 역사를 말하며, Geschichte는 사건의 일어남의 차원에서의 역사를 말한다. 가다머가 말하는 역사는 사실적 객관적 역사가 아닌 자신에게 의미 있는 역사, 즉 해석학적 역사이다. 그러나 가다머가 볼 때 엄밀한 의미에서의 객관적 역사란 있기 어렵다. 우리가 객관적 역사라고 보는 그 역사에도 사실 기록하는 자의 해석이 개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1) 실재성Realität과 사실성Faktizität

실재성Realität은 실제로 무엇이 실재하는가에 주목하나, 사실성Faktizität은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발생적 차원을 주목한다. 가다머는 이전의 모든 형이상학은 실재성의 차원에서 진리를 개진하려고 했기에 살아 있는 삶의 전체성을 제대로 말할 수 없었다고 비판한다. 그래서 가다머는 실재성에서가 아니라 사실성의 차원에서, 진리가 무엇인가를 보고자 한다. 그래서 가다머는 후설, 하이데거로 이어지는 현상학적 해석학을 토대로 하여, 이해하며 적용하며 해석하며 자기를 실현해가는 존재의 현사실성을 진리로 여기면서 철학적 해석학을 전개하는 것이다.

(12) 교양Bildung

Bildung이라는 단어는 가다머의 철학과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많은 용어 중 하나로, 때에 따라서 교육, 교양, 도야 상식 등으로 번역되지만, 그 어느 경우에도 가다머의 의미를 제대로 살려내는 데 한계가 있다. Bildung은 칸트의 경우에는 교육이나 교양의 의미에 가깝고, 헤겔의 경우에는 도야의 의미에 가깝지만, 가다머의 경우에는 늘 달리 자신을 실현해가는 이해의 운동이 교양으로 말해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Bildung은 칸트의 경우에는 공동체원들이 갖추어야 할 시민 소양 교육 및 보다 세련된 문화 교육을 받은 교양인과 관련 있고 헤겔의 경우에는 교육과 더불어 작물이 자라듯 점점 발전해간다는 의미에서의 도야와 관련 있지만, 가다머의 Bildung은 칸트나 헤겔처럼 가르치거나 발전하는 개념이 아니라,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각기 자기 나름의 존재성을 개진해간다는 의미와 관련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자기 교육이며, 발전의 의미보다는 달리 스스로 형성해감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렇기에 가다머의 교양은 어떤 목적을 향하거나 자신 밖의 그 어떤 것에 의해 일방적으로 전도된다는 의미가 아니며, 자율적인 존재가 갖추어야 할 덕목의 의미가 강하다. 즉 이해하며 적용하며 자기를 늘 달리 스스로 실현해가는 자율적 인간이 교양인이다.

4. 가다머 철학과 그에 대한 비판

이와 같은 가다머의 철학은 무엇보다도 진리를 실재성으로 여기며,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들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한다. 이를 위해 가다머는 하이데거의 기초 존재론에 근거한 세계 내 존재라는 사실로부터 세계를 이해하고 인간의 역사성과 언어를 숙고하며, 헤겔이 변증법적 운동으로 실재론을 극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절대 이성이라는 목적론으로 되돌아간 한계를 이해의 무한 운동으로 극복한다. 가다머의 이해의 운동은 선험적인 것과 경험적인 것 사이의 그동안의 논쟁을 동시적인 사건으로 바꾸는 일이다. 그래서 가다머는 늘 달리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며 실현해가는 존재 이해를 말하며 이를 진리로 표명한다. 그렇기에 가다머에게 이해와 해석과 적용은 차후에 이어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활동이 아니라 동시적인 것이다. 바로 이것이 가다머 철학의 특징이다.

이러한 가다머의 철학이 1960년 《진리와 방법》으로 발표되자 많은 논란이 일어났다. 그래서 가다머는 이 책 2판의 서문에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그는 해석학적 방법이나 이론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실 여부를 판가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이전의, 다시 말해 우리가 무엇을 판단하고 분별하기 이전의 진리의 물음을 묻고자 하는 것임을 재천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질의와 비판이 이어진다.

그중에서, 에밀리오 베티는 해석의 객관성과 방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가다머가 학문의 객관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하버마스는 《사회학의 논리Zur Logik der Sozialwissenschaften》에서 가다머 해석학의 일정 부분을 자신의 사회 비판 이론에 수용하면서도 이데올로기 비판의 관점에서 가다머의 철학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76) 하버마스는 그렇다면 왜곡된 역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시정할 것인가에 대해 가다머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되묻는다. 이에 대해 가다머는 〈수사학, 해석학, 그리고 이데올로기 비판Rhetorik, Hermeneutik, und Ideologiekritik〉이라는 논문으로 대응한다. 여기서 가다머는 하버마스의 견해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 반론을 제기한다. 첫째는 자신의 철학은 현사실적으로 진리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는 존재론적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가치의 물음은 그 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에 자신은 하버마스와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다. 둘째는 이해는 곧 적용하며 있는 것으로, 그 시대의 가치와 공동체의 가치와 더불어 이미 이해와 적용하는 가운데 하나로 지평 융합하며 있는 것이기에 하버마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가치적인 것이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하버마스와 입장을 같이하는 벨머Albrecht Welmer, 아펠Karl-Otto Apel 등이 1968년 〈과학주의, 해석학, 이데올로기 비판Szientistik, Hermeneutik, Ideologiekritik〉으로, 그리고 보르만C. V. Bormann이 1969년 〈해석학적 경험의 불명료성Die Zweideutigkeit der hermeneutischen Erfahrung〉으로 가다머를 비판하고 나선다. 이에 대해 가다머의 제자인 부브너R. Bubner가 〈비판 이론이란 무엇인가Was ist Kritische Theorie〉와 〈철학은 사유 속에서 파악된 그의 시대이다Philo-sophieist ihre Zeit, in Gedenken erfasst〉로 하버마스를 비판하자 기겔H. J. Giegel이 〈반성과 해방Reflexion und Emanzi-pation〉으로 가다머와 부브너를 다시 비판한다. 그리고 하버마스는 1970년 《해석학의 보편성 요구Universalitätsanspruch der Hermeneutik》에서 다시 자신의 비판점을 피력하고 이에 관한 토론 모음집인 《해석학과 이데올로기 비판Hermeneutik und Ideologiekritik》을 출간한다. 가다머는 이듬해에 〈답변Replik〉을 통해 하버마스와 아펠, 보르만, 기겔 모두를 겨냥해 비판적 해석학의 잘못을 다시 구체적으로 비판한다.

그뿐만 아니라 1981년 가다머가 파리에서 한 강연 “텍스트와 해석”77)으로 촉발된 데리다와의 해체 논쟁은 10년 가까이 이어진다. 이 두 사람은 모두 방법적 사유를 거부하고 새로운 철학적 사유를 추구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가다머가 전형적인 독일 낭만주의 철학자라면 데리다는 프랑스 색채를 고스란히 담아낸 철학자로서 가다머는 ‘대화’를 강조하고 데리다는 ‘차이’를 강조한다.

데리다가 볼 때 가다머 철학은 대화라는 소통의 의지를 구체적인 상호 작용보다 앞서 전제하고 있어서 선의지의 힘을 신뢰하는 의지의 형이상학으로 복귀하며, 이 점에서 결국 권력에의 선의지Guter Wille zur Macht를 드러낸다고 한다. 또한 가다머의 심리 분석은 일반 해석학으로 통용될 수 없는 것으로, 이해된 것의 습득이 아니라 오히려 이해되지 않음이라는 소통의 단절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가다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의지의 힘은 존재한다 Und denoch Macht des Guten Willens”고 밝히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 때로는 힘든 일을 감수하기도 하며, 이는 결코 남을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답한다. 이에 대해 다시 데리다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말한 것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그가 말하려 하지 않은 것, 말하지 않은 것을 이해하려고 한다고 날을 세우자, 가다머는 우리는 이해의 선취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알 수 없으며, 해석학은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수용하며 이를 계속해서 시정해가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그 밖에도 아도르노, 아펠, 로티Richard Rorty, 알버트H. Albert 등 수많은 이들과의 논쟁이 이어지는데 이는 가다머의 철학이 그만큼 중요한 문제의식을 다방면으로 풍성하게 제공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처럼 가다머와 더불어 진행된 세기의 논쟁78) 덕분에 이 시기의 사유는 풍성할 수 있었다.